

개정 7차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品詞’의 교수·학습내용에 관한 연구

鄭 順 泳 *

<目 次>

- | | |
|--------------------|------------------|
| I. 序論 | Ⅲ. ‘品詞’의 教授·學習內容 |
| Ⅱ. 漢文과 國語의 ‘品詞’ 比較 | Ⅳ. 結論 |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개정 7차 한문과 교육과정해설서에서 새로운 학습요소로 설정된 ‘品詞’에 대한 교수·학습내용에 대한 연구다.

우리 국어는 교착형으로 각 형태소로 분석이 가능한 여러 형태들로 단어가 구성되는 유형이며, 한문은 하나의 단어가 대개 하나의 형태소로 구성되는 유형인 고립형이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국어의 품사분류기준은 ‘형태’, ‘의미’, ‘기능’의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한문은 형태변화가 없으므로 ‘의미’와 ‘기능’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품사의 종류도 다르게 분류된다. 따라서 국어는 품사가 달라지면 형태도 달라진다. 그러나 한문은 고립형으로 이러한 품사별 형태적 특징이 없이 문장에서의 전후에 위치하는 품사에 따라 활용되어 쓰인다. 즉 한문의 품사는 특정한 문장 환경 속에서 다른 품사처럼 쓰여 문장구조와 의미에 변화가 있게 된다.

본 연구는 한문 ‘품사’에 대하여 우리 국어와 비교·대조하여 그 일반성과 개별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단위문장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문장 환경에서 정

* 성신여자대학교 강사 / 7743jsy@hanmail.net

해진 품사 외에 달리 쓰이고 있는 품사의 기능과 의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한문독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한문문법의 교수·학습 내용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품사, 활용, 교착어, 고립어, 형태소

I. 序 論

개정 7차 교육과정 해설서의 ‘한문지식’영역은 ‘한자’, ‘어휘’, ‘문장’ 차원에서 한문에 대한 문법적인 이해를 다루고 있다. 내용요소를 살펴 보면, ‘한자’영역에서는 한자의 문자학적 지식으로 한자의 특징이나 한자의 짜임, 한자의 역사 등을, ‘어휘’영역에서는 한문어휘의 형태론적 특성으로 단어의 종류, 단어의 짜임, 품사의 종류와 특성, 품사의 활용, 어휘의 유형과 의미 등을, ‘한문’영역에서는 한문문장의 통사론적 특성으로 문장 성분과 문장의 구조, 문장의 유형, 문장의 수사법 등을 학습 내용요소로 삼고 있다.

그 동안 독해력 신장에 기본이 되는 문법교육에 있어 한자의 짜임이나 문장의 구조, 문장의 형식 등에 국한된 학습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번 개정교육과정해설서는 한문문법의 통사·형태론적 특성을 살펴 문법범위나 내용, 용어의 명칭과 개념 등 문법방면에서 타 교과와 보편적 문법학습요소의 구성 체계를 갖추어 매우 발전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한문문법에 대한 통일과 정립에 대한 학술발표¹⁾에 근거하여 그 동안의 한문과 학교문법교육을 위한 학계와 교육현장에서 제기되었던 많은 문

1) 한국한문교육학회에서 1995년에 ‘한문문법’을 공동주제로 한 학술대회와 2001년 ‘학교 한문문법의 정립’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으며,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에서는 2005년에 ‘한문 학교문법의 정립을 위한 탐색’을 주제로 한 학술발표대회가 있었지만, ‘한문문법통일안’은 제정되지 않았다.

제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수용하여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해설서는 현장교사가 문법을 교수하는데 있어서 교사가 알아야 할 충분한 교사문법지식이 제시되지 않아 이해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한문문법에 대한 ‘한문문법통일안’과 보다 자세한 ‘교사가 알고 있어야 될 문법지식으로서의 교사문법’²⁾이 마련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한문 문법교육의 교수·학습방법은 옛날에는 서당식 암기를 통하여 무의식적으로 습득되는 사후이해로 학습되었다. 즉 많은 작품을 읽다보면서 文理를 저절로 터득하여 한문문법지식을 귀납적으로 터득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중·고등학교에서 짧은 작품이나 제한적인 한문문장을 접하는 초학자들이 한문문장의 독해에 있어서 사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한문문법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한문문법교육은 한문 독해를 위해 앞으로 의식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한문에 대한 전반적인 문법지식의 총합에 대한 순차적인 이해가 어느 단계에서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한문과 학교문법은 학문문법으로서의 체계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지만, 의식적인 학습절차를 전제로 빈도나 난이도, 학습자의 변인 등 기타 여러 변인들에 의해 교수·학습의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며,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漢文의 독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법교수·학습방법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번에 새롭게 설정된 학습요소 중에서 한문의 ‘품사’에 대한 학습내용요소를 살펴 한문문법의 교수·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그 동안 한문문법교육을 위한 품사 연구는 품사의 개념과 분류기준에

2) 교사문법과 교수문법은 일치 하지 않아도 된다. 교사문법은 교사가 갖고 있는 문법지식이며, 교수문법은 문법교육방법이나 설명을 의미하는데, 일치하려면 구체적인 문법용어를 알려줘야 된다. 한문과 학교문법은 독해를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따른 종류 및 개념 정의에 따른 용어의 명칭 선택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품사의 기능이나 활용 등에 대한 논문은 없었다.³⁾ 다만 한문문법개론서에서 품사에 대한 기능과 활용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⁴⁾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 품사에 대한 학습내용요소는 품사의 개념과 분류 및 품사의 기능과 활용까지도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한문교사들은 한문의 품사교육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내용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교수·학습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추어 한문의 품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예시문을 통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도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한문의 ‘품사’에 대한 교수·학습방법으로써 II에서는 한문의 품사를 우리 국어와 비교·대조하는 방법으로 한문품사에 대한 일반성과 개별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한문 품사에 대한 이해에 있어 한문의 언어적 특성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이라 생각된다.⁵⁾ 또한 III에서 한문의 단어는 문장 전후에 위치하

3) 한문과 학교문법에서의 품사분류와 내용에 대한 연구로 安載澈의 「한문교육에 있어서 품사분류 및 용어문제」, 『漢文教育研究』 제10호, 韓國漢文教育學會, 1996.; 「學校 漢文文法の 品詞 分類와 그 內容에 관한 問題」, 『漢文教育研究』 제17호, 韓國漢文教育學會, 2001.; 拙稿, 「한문 학교문법의 품사분류와 명칭」, 『한자한문교육』 16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6. 등이 있다.

4) 金容傑, 『漢文解釋方法』, 教學社, 2003.; 崔相翼, 『漢文解釋講話』, 한울아카데미, 1997.;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편, 『풀어쓴 기초한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성신여자대학교 기초한문편찬위원회, 『기초한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9. 등이 있다.

5) 이을환·박상규 공저, 『언어학의 이해』, 피어슨 에듀케이션코리아 2000, pp.10-11, “두 개 이상의 언어를 비교 대조하여 연구하는데, 현재 연구결과로서 친연관계가 없는, 동일한 어족에 속하지 않는 언어들을 연구하는 것을 대조 언어학(contrastive linguistics)이라고 한다.”

김미형, 『인지적 대조언어학의 방법론 연구 -한국어와 영어를 대상으로-』, 한국문화사, 2009, pp.14-18, “언어학에서 ‘대조’라는 개념을 처음 쓴 학자는 훔볼트(W.Humboldt)이다. …… 한 국가의 언어적 특징은 매우 많은 개별적

는 품사에 따라 단어의 품사가 달리 쓰인다. 그래서 한문에 정해진 품사가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한문의 단어도 품사는 정해져 있으며 각 품사는 문장 속에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 중에서 名詞·動詞·形容詞를 중심으로 정해진 품사 외에 특정한 문장 환경에서 달리 쓰이는 活用⁶⁾에 대하여 그 용법에 해당되는 예문의 반복적 나열학습을 통해 익힐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예문들을 제시 분석하여 교육현장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漢文과 國語의 ‘品詞’ 比較

개정 7차 중학교 교육과정해설서의 ‘[1-어휘-(3)] 품사의 종류와 특성을 안다.’에서 ‘품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방법으로 실현되는 언어의 착상(idea)을 관찰할 때, 그리고 한 국가의 언어의 특징을 다른 언어와 견주어 일반적인 것을 비교하고, 개별적인 것을 대조할 수 있을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언급하였다. …… 현재까지 대조언어학은 주로 응용언어학의 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데, 외국어 교육을 위한 연구 외에 또 하나의 응용학문적 성격을 띠는 연구가 외국어 번역을 위한 대조언어학의 연구이다.”

- 6) ‘活用’이라는 용어는 李作南·李仁孝, 『古今漢語語法比較』, 內蒙古人民出版社, 1985, pp.85-87, “古代漢語的名詞往往可以作動詞用 人們一般稱它爲名詞的活用 …… 在現代漢語中 名詞是不能作動詞用的 …… 古代漢語中名詞的這種使動用法 在現代漢語里已經不存在了”; 聶代順 主編, 『古代漢語語法解釋』, 重慶出版社, 1997, p.10, “所謂名詞的活用就是……”와 같이 중국에서는 본래의 품사로 쓰이지 않고 다른 품사로 쓰이는 것으로 ‘활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 국어에서의 ‘活用’은 어미변화에 의하여 다른 품사로 활용이 되는 것이 품사적 활용이라 한다. 한 품사가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품사로 쓰이는 그것을 ‘轉換’(conversion, 그를 만났습니다.(대명사)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관형사)이라 하고, 한 품사가 모습을 달리하여 다른 품사로 바뀌게 되는 것을 접미사에 의한 품사의 ‘轉成’(해가 아주 밝다.(형용사) 밝기가 한낮 같다.(명사)이라한다. (유목상, 『한국어의 문법구조』, 한국문화사, 2007, pp.101-127. 참조.) 한문문법에서 ‘活用’이라는 용어사용에 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품사(品詞)’는 어휘를 문법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모아 놓은 단어들의 갈래를 말한다. 한문의 단어는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라 품사가 바뀌고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한문의 품사는 단어가 원래 지니고 있는 의미뿐만 아니라 문장에서의 쓰임까지 고려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中略) 품사에는 단독으로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실사(實辭)와 단지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고 단독으로는 어휘적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허사(虛辭)가 있다.

라고 하고, 실사의 하위분류로 명사·대명사·수사·동사·형용사·부사를 설정하고, 허사의 하위분류로 개사·접속사·어조사·감탄사를 설정하고 있다.

무언가를 분류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공통적인 성질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품사도 많은 단어들을 어떤 공통적인 성질에 따라 몇 갈래로 묶은 것이다.

품사분류의 기준은 언어관에 따라 달라지고 품사에 대한 개념규정에 따라서도 그 적용범위가 달라 질 수 있다. 품사분류의 기준은 일찍부터 意味(meaning), 形態(form), 機能(function)의 세 가지 범주였다. 세 가지 기준인 기능, 형태, 의미가 단독으로는 전통적인 의미의 품사분류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세 기준이 상호보완적인 구실을 해야 한다.⁷⁾ 우리 국어문법의 품사분류기준은 기능, 의미, 형태의 세 가지이다.⁸⁾ 한문은 형태변화가 없으므로 단어의 의미와 기능으로 품사분류의 기준을 삼는다.⁹⁾

‘形態’기준은 품사의 형태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품사는 본래 자립형식이기 때문에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 국어에서 ‘어미’는 단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동사와 형용사는 형태가 변하는 변화어에 속한다. 한문에서는 형태변화가 없기 때문에 형태를 분류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

7) 이광정, 『국어문법연구Ⅲ 한국어품사연구』, 도서출판 역락, 2008, pp.40-45. 참조

8) 이광정, 위의 책, p.350. 참조

9)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拙稿, 앞의 논문, pp.101-111. 참조.

‘意味’ 기준은 단어들이 어떤 의미적 특성을 갖느냐에 따라 유형을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여기서 의미는 개별 단어의 어휘적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의미를 말한다. 특정한 대상의 이름을 가리키는 단어들을 ‘名詞’라고 한다.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를 ‘動詞’라 하고,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를 ‘形容詞’라고 한다.¹⁰⁾ 어휘적 의미는 개개의 한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뜻하는 것으로 이는 모든 한 자 한 자가 가지고 있는 본의, 파생의, 가차의, 인신의 등의 의미를 포괄하는 것이다.

‘機能’ 기준은 문장 내에서 단어가 어떠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고 같은 기능을 하는 것끼리 묶을 수 있는 것으로, ‘기능’은 품사분류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¹¹⁾ 즉 한 단어가 문장가운데 다른 단어와 맺는 관계에 따라 주어는 ‘무엇이’, ‘누가’의 형식적 의미로 서술(동작이나 상태 성질)의 주체로의 주어기능, 서술어는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등의 형식적 의미로 문장의 주체를 서술하는 기능, 관형어는 ‘-어떤’의 형식적 의미로 문장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으로, 부사어는 ‘어떻게’의 형식적 의미로 동사나 형용사 또는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기능으로서 문장성분으로 쓰인다. 이와 같은 형식적 의미와 기능을 공통으로 하는 단어들의 갈래를 같은 품사로 설정한다.

이러한 품사의 분류 기준개념을 통해 품사의 하위분류에 대한 한문과 국어의 차이점을 볼 수 있다. 한문과 국어의 품사에 있어서 다른 점은 接續詞·介詞·冠形詞의 유무와 助詞[어조사]의 명칭 및 개념에 대한 차이를 들 수 있다.

우선 接續詞의 경우, 우리 국어의 학교문법에서는 접속사를 품사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 접속조사(단어연결 : 와/과, 하고, 이며, 예다, 량), 접속부사(그러나 등)로 보고 있다. 학자에 따라 접속사를 독립품사로의

10) 임지룡·이은규·김종록·송창선 황미향·이문규·최응환, 『학교문법과 문법교육』, 박이정, 2009, pp.151-152. 참조.

11) 임지룡 외, 위의 책, pp.151-152. 참조.

설정을 주장하기도 한다.¹²⁾ 한문에서는 접속사를 품사로 인정하고 있다.

冠形詞의 경우를 살펴보면,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주는 단어다. 한문에 없는 품사다. 한문에서는 관형어라는 문장성분은 있는데 관형사라는 품사는 없다. 국어의 **관형어** 중에서 형태적 측면에서 활용하는 것은 동사·형용사이고,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관형사(새 집, 그 섬에 가고 싶다. 신발 한 짝)다. 명사가 관형어로 쓰일 경우에는 관형격조사 ‘의’가 있어야 하며, 용언의 경우는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는/ㄴ’)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관형어 중에 활용하지 않는 경우 **관형사**이다. 그러나 한문은 고립어로서 활용이 없다. 그러므로 구별이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介詞와 助詞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존 前置詞의 명칭을 이 번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문의 문법적 특성에 근거하여 介詞로 명칭을 바꾸었다.¹³⁾ 介詞는 명사 앞에 온다는 점에서 영어의 前置詞와 같지만 항상 명사 앞에만 오는 것은 아니다.¹⁴⁾ 介詞는 우리 국어문법에 없는 명칭이다. 介詞는 명사나 대명사 등 명사류 앞에 놓여 그 명사류와 서술어 사이에서 ‘대상’, ‘장소’, ‘시간’, ‘비교’ 등의 문법의미를 나타내는 품사로, 우리 국어에 있어서는 ‘에서’, ‘에게’, ‘에’, ‘보다’ 등의 다양한 ‘助詞’로 나타난다. 또한 우리 국어에서의 다양한 語尾의 쓰임도 한문에서는 介詞와 副詞, 句末語氣助詞 등으로 나타난다.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런 점에서 한문에서의 助詞의 쓰임과 우리 국어에서 助詞와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12) 이관규, 『학교문법론』, 월인, 2005, p.121, p.145, p.250. 참조.

13) 개정교육과정은 용어 사용에서 한문의 문법적 특성에 맞게 전치사를 개사로, 목적어를 빈어 바꾸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대명사도 대사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만 하다. 왜냐하면 국어에서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 지칭하지만 한문에서는 동사, 형용사, 부사 또는 구나 절 까지도 대신 지칭하기 때문이다. (안재철, 「學校 漢文文法の 品詞分類와 그 내용에 관한 문제」, 앞의 논문, pp.65-66.)

14) 介詞는 주로 명사나 명사상당어구 앞에 놓여 서술어와의 관계에 따라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변화를 주거나 개사빈어를 강조하기 위해 개사가 개사빈어 뒤에 오기도 한다. ‘腹以懷我 乳以哺我 以衣溫我 以食飽我’(『四字小學』) (拙稿, 「漢文 學校文法の 品詞分類와 名稱」, 앞의 논문.)

개정교육과정에서는 ‘語助詞’라는 명칭으로 달리 사용하였다.¹⁵⁾

국어는 한문과 달리 조사가 붙은 단어는 문장의 어디에 있더라도 그 성분을 알 수 있기에 문장 안에서의 이동이 자유롭고, 조사는 간단하게 선행명사 뒤에 붙어 다양한 의미를 더해주거나 제한해 주기도 한다. 이는 우리 국어의 특징 중의 하나로 격조사를 알고 있으면 문장 안에서 어순이 뒤바뀌었다더라도 격조사와 결합한 명사구가 문장 안에서 어떤 격을 나타내고 있는가 알 수 있고, 보조사를 알고 있으면 그 문장에 더해진 의미를 알 수 있다.¹⁶⁾

15) 국어에서 어미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어미로 나누며, 선어말어미는 시제선어말어미, 준비선어말 어미로 나누고, 어말어미는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로 나눈다. 이러한 역할이 한문에서는 개사, 접속사, 어말어기조사, 부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는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로 나눈다. 국어에서 조사는 낱말이기는 하나 다른 낱말과는 달리 낱말로서의 독립성을 갖지 못하고 주로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과 결합하여 선행명사와 다른 문장 성분과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더해준다. 이러한 기능을 한문에서는 개사와 접속사, 부사, 조사(구조조사 ‘之’, 어말조사 등)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주체나 대조는 어순에 의해 의미를 더해주지만, 유일 단독의 의미는 부사(獨, 惟(唯))와 어말어기조사(爾)와 호응하여 나타난다. 국어의 서술격조사 ‘이다’는 격조사 중에서 이질적이다. 대개 체언에 붙어서 체언을 서술어로 가능하게 한다. 다른 조사와는 달리 문장 안에서 관계를 나타내지 않으며, 활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래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에서는 ‘이다’를 동사로 규정하여 ‘이다’동사라 한다. 국어의 ‘이다’동사는 영어의 ‘be’동사에 해당하며, 한문에서는 ‘是’, ‘爲’에 해당한다. 영어에서 ‘be’, ‘become’, ‘get’동사는 ‘-이다’, ‘-이 되다’의 뜻으로 쓰여 보어를 동반한다. (‘become’이 타동사로 ‘에 어울리다’로 쓰이면 3형식문형) 국어에서는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이/가’가 붙은 성분만을 보어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한문에서 보어를 ‘이다’, ‘되다’, ‘아니다’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是’, ‘爲’, ‘非’ 뒤의 성분을 보어로 설정할 수 있는 보편적 문법 체계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된다. (자세한 것은 拙稿, 「중학교 한문과 “한문 지식영역”에서 한문문법의 문제 -빈어와 보어의 설정문제-」, 『漢文教育研究』 제31호, 韓國漢文教育學會, 2008. 참조.)

16) 우리 국어는 글로 표현할 때의 어순과 말로 표현할 때의 어순에 차이가 있다. (철수가 그 사과를 먹었어. 그 사과는 철수가 먹었어. ‘는’은 주제 대조 보조사) 이는 주제중심언어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우

이에 반해 한문에 있어서 격은 어순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鳥飛’에서 ‘飛’는 서술어인데, ‘飛鳥’에서 ‘飛’는 관형어가 된다. 이와 같이 한문에서는 국어와 달리 어순에 의해 문장성분(격)이 정해진다.¹⁷⁾한문에서 어순을 달리하면 문법적으로는 성립하지만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어 화자의 의미전달에 있어서 청자가 오해를 하게 된다. 우리 국어는 어순을 달리하면 문법적으로 특수한 어순이거나 올바른 문장이 되지 않지만 의미는 대체적으로 전달이 된다. 그러므로 한문의 어순은 문법적 구조 관계 분석의 결정적인 증거로 인식되며, 문장이 문맥을 떠나면 내용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상과 같이 한문과 우리 국어에서의 품사설정기준과 하위분류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 국어와 한문의 형태에 따른 언어유형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우리 국어는 교착형으로 각 형태소(morpheme)¹⁸⁾로 분석이 가능한 여러 형태들로 단어가 구성되는 유형이며, 한문은 하나의 단어가 대개 하나의 형태소로 구성된 유형인 고립형

리 국어는 서술어 중심언어라 할 수 있다.('인사를 했다.'에서 '했다'가 서술어이지만 실제동작은 '인사'라는 말에 있고 '했다'는 서술어로서의 의미기능은 없고 형식적 기능만을 할 뿐이다. 이를 기능동사(support verb)라 하는데 이는 우리 국어가 서술어중심언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어는 주어중심언어로 주어 'it'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허용·강현화·고명균·김미옥·김선정·김재욱·박동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개론』, 박이정, 2006. pp.45-46. 참조.)

- 17) 우리 국어는 교착어로 어간에 어미가 붙어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언어다. 예를 들어 '가다'는 '간다', '갔다', '가겠다', '가니?', '가라'와 같이 '가'의 어간에 다양한 형태의 어미가 와서 敍法(Mood), 樣態(Modal), 時相(시제Tense, 상Aspect) 등을 나타낸다. 한문은 고립어로서 활용을 하지 못하여, 이러한 다양한 문법적의미를 부사와 조동사, 어조사 등이 담당하고 있다.
- 18) 漢文에 있어서 漢字는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單語가 되며, 이는 문장구성에 있어서 하나의 성분요소가 된다. 또한 의미를 가진 最小單位인 하나의 形態素(Morpheme)가 되기도 한다. 單語의 내부구조를 分析·記述하는 形態論 연구에 있어서 單語는 최대단위이며, 單語 및 單語의 결합인 構文上의 모든 기능을 해명하는 統辭論에 있어서 單語는 최소단위가 된다.

이기 때문이다.¹⁹⁾이러한 차이점은 또한 국어가 기본적으로 명사가 그대로 동사로 쓰일 수 없는 형태적 특징을 갖는데, 명사가 동사의 뜻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동사다운 형태를 갖추어야하고 동사가 명사로 쓰이기 위해서는 명사다운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즉 국어는 품사가 달라지면 형태도 달라지는 변별적 형식을 사용한다.²⁰⁾ 그러나 한문은 고립형으로 이러한 품사별 형태적 특징이 없고, 한문의 품사는 문장에서의 전후에 위치하는 품사에 따라 활용되어 쓰인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品詞’의 敎授·學習內容

개정 7차 중학교 교육과정해설서의 ‘[2-어휘-(3)] 품사의 종류와 특성을 안다.’에서 ‘품사의 활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한문의 단어는 특정한 문장 환경 아래에서 임시로 다른 품사처럼 쓰이기도 하는데, 이를 품사의 활용이라고 한다.

한문의 단어가 각각의 품사에 따라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정해진 기능 외에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즉 명사가 때로는 동사처럼 서술어로 쓰이며 형용사가 동사처럼 빈어를 수반하여 서술어로 쓰이기도 하고 때로 명사가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단어가 특정한 문장 환경 속에서 본래 품사에서 벗어나 다른 품사처럼 쓰이는 경우를 품사의 活用이라고 한다.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품사 활용의 예로 명사의 동사적 활용, 명사의 부사적 활용, 수사의 부사적 활용, 동사의 명사적 활용, 형용사의 명사적 활용, 형용사의 동사적 활용

19) 허용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개론』, 박이정, 2006, p.36. 참조.

20) ‘감사’가 동사로 쓰이기 위해서는 ‘감사하다’가 되어야하고, ‘알다’가 명사가 되기 위해서는 ‘앞’이 되어야 한다. (김미형, 앞의 책, pp.131-132. 참조.)

등을 예문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명사·동사·형용사를 중심으로 각 품사의 다양한 용법과 다른 품사로 쓰일 수 있는 문장 환경을 중심으로 해당 예문을 제시하여 한문 독해에 있어서 보다 쉽고 빠르게 독해 실력을 익히게 하고자 한다.

1. 名詞

사람과 모든 사물의 명칭을 나타내는 품사다. 명사는 4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天, 地, 山과 같이 구체적인 사물의 명칭을 나타내는 普通名詞와 人名, 地名, 國名, 書名, 山水名 등과 같이 특정한 하나의 사물의 명칭을 나타내는 固有名詞와 仁, 義, 德, 禮와 같이 추상적 개념의 명칭을 나타내는 抽象名詞와 今, 昔, 月, 上, 內 등과 같이 시간과 방위를 나타내는 時間·方位名詞로 나눌 수 있다.²¹⁾ 명사의 어법특징은 주어, 서술어, 빈어, 보어 등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한문에서는 명사가 동사로 쓰일 수 있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명사의 활용이라 한다.²²⁾ 명사의 문법기능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永州之野產異蛇「柳宗元 捕蛇者說」(영주의 들판에는 기이한 뱀이 자란다.)
- ② 崔致遠 字孤雲『三國史記』(최치원은 자가 고운이다.)
- ③ 君君臣臣父父子子『論語 顏淵』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답다)
- ④ 遂王天下『韓非子 五蠹』(드디어 천하에 왕 노릇하다.)
- ⑤ 豕人立而啼『左傳 莊公八年』(돼지가 사람처럼 서서 울부짖었다.)

①에서 명사 ‘永州’는 문장에서 관형어의 성분으로 쓰였으며, 명사

21)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 語文出版社, 1992, p.80. 참조.

22) 李作南·李仁孝, 앞의 책, p.85. 참조, “古代漢語的名詞往往可以作動詞用 人們一般稱它爲名詞的活用 古代漢語的名詞還可以直接作謂語”

‘野’는 주어, 명사 ‘蛇’는 빈어로 쓰였으며, ②에서 고유명사 ‘孤雲’이 서술어로 쓰인 판단문을 이루고 있다. 이는 한문에서는 명사가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 개별성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빈어·관형어·서술어 등의 성분으로 쓰인다. 그러나 ③의 명사 ‘臣’도 서술어로 쓰이고 있으나 판단문이 아니고, 문맥상 ‘임금답게 하다’, ‘신하답게 하다’, ‘아버지답게 하다’, ‘자식답게 하다’는 의미로 명사가 나타내는 사람의 행동과 같이 하는 동사로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²³⁾ ④는 명사 ‘王’이 서술어로 쓰여 동사와 같이 뒤에 빈어를 동반하고 있다. ⑤는 명사 ‘人’이 서술어 ‘立’ 앞에 위치하여 부사어로서 ‘사람처럼’의 부사와 같이 쓰여 비유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한문에서 명사가 특정한 문장 환경 속에서 다른 품사처럼 쓰여 문장구조와 의미에 변화가 생긴다. 그 구조는 위의 예처럼 서술어와 빈어관계가 될 수 있고, 부사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를 명사의 동사적 용법과 부사적 용법으로 나누어 명사가 동사로 쓰일 수 있는 문장 환경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1) 名詞의 動詞的用法

(1) 명사+명사

단위 문장에서 동사가 없고 두 개의 명사가 긴밀히 이어져 병렬관계도 아니고 수식관계도 아니면 그 중의 한 명사는 반드시 동사로 쓰인다.²⁴⁾

- ① 范增數目項王『史記 項羽本紀』(범증이 여러 차례 항왕에게 눈짓을 하였다.)
五十者可以衣帛矣『孟子 梁惠王上』

23) 匡裕群 著, 『文言語法例釋』, 湖南出版社, 1997, p.108, “名詞充當非判斷句的謂語或無主語的謂語 活用爲動賓詞組”, “君君 國君像個國君”

24) 楊合鳴 編著·최금옥 譯, 『古今語法差異』, 한국학술정보주식회사, 2008, p.29. 참조.

(오십 세가 된 사람이 비단옷을 입을 수 있다.)

② 人人吾 吾不喜 『李達表 愛惡箴并序』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람답다고 여겨도 나는 기쁘지 않다.)

友風而子雨 『荀子 賦 雲』

(구름이) 바람을 친구로 삼고 비를 자식으로 삼는다.)

③ 公若曰 爾欲吳王我乎 『左傳 定公十年』

(공약이 (武叔의 馬官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나로 하여금 오나라 왕처럼 되도록 할 생각인가?)

夫子所謂生死而肉骨也 『左傳 襄公二十二年』

(선생님이 말한바 죽은 사람을 살게 하고 백골에 살 붙게 하는 것이다.)

위 예문은 모두 명사와 명사가 나란히 이어져 있는 구조이다. ①은 명사 ‘目’과 ‘項王’이 나란히 이어져 있다. 이 경우 명사 ‘目’은 동사로 쓰여 ‘눈짓하다’, ‘암시하다’의 뜻으로 지향대상인 빈어 ‘項王’을 동반하고 있는 서술어로 쓰였다. 명사 ‘衣’도 동사로 쓰여 빈어 ‘帛’을 동반하여 ‘옷 입다’의 뜻의 서술어로 쓰이고 있다. ②는 명사 ‘人’이 意動動詞로 쓰여, ‘-을 사람답게 여기다’의 뜻으로 빈어를 동반하고 있다. 의동동사는 긍정의 의미를 내포한 동사로 빈어에 대해 ‘-을 무엇으로 여기다’ 또는 ‘-을 어떠하다고 여기다’라는 술빈구조의 의미를 나타낸다. 한문에서의 의동동사는 ‘以’, ‘以爲’ 등으로 ‘以吾爲人[나를 사람으로 여기다.]’의 형식을 간략히 하여 의동동사를 쓰지 않고 명사가 의동동사로 활용하여 (주어)+서술어+빈어’의 구조를 구성하여 의동문이 된다. ③은 명사 ‘吳王’이 使動動詞로 쓰여, ‘-를 오왕되게 하다’의 뜻으로 빈어를 동반하고 있다. 사동동사는 사역의 의미를 지닌 동사로, 빈어로 하여금 어떤 동작 행위를 하게 하는 작용을 갖게 하고 있다. 사역동사는 命, 令, 使 등으로 사동동사가 쓰인 문장은 모두 겸어문의 형식을 지닌다. 그러나 사동동사를 쓰지 않고 명사가 사동동사로 활용되어 ‘주어+서술어+빈어’의 구조를 구성하여 ‘使我爲吳王’의 겸어문 형식을 간략화했다. 명사가 사동동사로 쓰일 때는 주어가 빈어로 하여금 이 명사가 나타내는 사람 또는

사물이 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吳王’은 원래 ‘오나라 왕’이라는 명사이지만, 뒤에 代名詞 ‘我’가 빈어로 쓰였기 때문에 동사로 활용되었으며,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사동문이 된다.

(2) 명사+之

단위 문장에서 동사가 없고 명사 뒤에 대명사 ‘之’가 올 때 이 명사는 동사로 쓰인다.

① 左右欲兵之 『史記 伯夷叔齊列傳』

(좌우의 사람들이 그(백이숙제)를 죽이고자 하였다.)

宦官懼其毀已 皆共目之 『後漢書 張衡傳』

(환관들은 장형이 자신의 죄과를 폭로할까 두려워 모두들 그(장형)를 주시했다.)

② 不如吾聞而藥之 『左傳 襄公三十年』

(내가 (백성의 여론을) 듣고서 그것을 약으로 삼는 것만 못하다.)

위 예문은 명사 뒤에 ‘之’가 이어져 있는 구조이다. ①에서 명사 ‘兵’은 동사와 같이 빈어를 동반하여 ‘죽이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으며, ②에서 ‘藥’은 ‘약’이라는 명사이지만 뒤에 빈어 ‘之’를 동반하여 ‘以之爲藥 [그것을 약으로 삼다.]’의 뜻의 동사로 활용되었다. 이처럼 명사로 쓰이는 단어 뒤에 빈어가 왔을 때 그 빈어가 명사의 어떠한 성질이나 상태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여 ‘~을 ~으로 삼다’, ‘~을 ~으로 여기다’ 라는 동사적으로 해석될 때 이 명사는 意動動詞로 활용되어 의동문이 된다.

(3) 부사+명사

단위 문장에서 동사가 없고 명사 앞에 부사가 밀접하게 이어질 때, 이 명사는 동사로 쓰인다.²⁵⁾

25) 周秉鈞, 『古漢語綱要』, 湖南人民出版社, 1978, p.338, “助動詞或副詞後的名詞

① 王之不_王 不爲也 非不能也 『孟子 梁惠王上』

(왕이 왕노릇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人不_人吾 吾不懼 『李達衷 愛惡箴并序』

(사람들이 나를 사람답지 않다고 여겨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② 秦師遂_東 『左傳 僖公三十二年』 (진나라의 군대가 마침내 동쪽으로 갔다.)

①은 부정부사 ‘不’ 뒤에 명사 ‘王’이 이어져 ‘왕노릇하다’의 동사로 활용되어 쓰였다. ‘不’의 문법기능은 동사·형용사·조동사·부사 등을 부정하지, 명사를 부정하는 기능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²⁶⁾ ‘人’은 빈어 ‘吾’를 동반하여 동사로 쓰인 것이다. ②는 부사 ‘遂’와 방위명사 ‘東’이 이어져 ‘東’은 ‘동쪽으로 가다’라는 동사로 쓰였다.

(4) 조동사+명사

단위 문장에서 한 개의 조동사만 있고 명사 앞에서 조동사가 밀접하게 이어져 있을 때, 이 때 명사는 동사로 쓰인다.

左右欲_刃相如 『史記 廉頗藺相如列傳』

(秦王) 좌우의 시종들은 인상여를 죽이려 했다.)

江東雖小 地方千里 衆數十萬人 亦足_王也 願大王急渡 『史記 項羽自刎』

(… 또한 죽히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대왕께서는 급히 건너소서.)

위에서 명사 ‘刃’과 ‘王’은 조동사 ‘欲’과 ‘足’ 뒤에 쓰여 ‘죽이다’, ‘왕노릇하다’의 뜻의 동사로 쓰이고 있다.

(5) 명사+개사구조

단위 문장에서 동사가 없고 명사 뒤에 개사구조가 긴밀히 이어졌을

活用動詞”

26) 韓學重, 「先秦散文의 否定法 研究」, 충남대학교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pp. 49-51.

경우, 이 때 명사는 동사로 쓰인다.²⁷⁾

晉師軍于廬柳 『左傳 僖公二十四年』 (진나라 군대가廬柳에 주둔하였다.)

위 예문은 명사 ‘軍’ 뒤에 개사구조가 이어진 구조이다. 이 경우 명사 ‘軍’은 동사로 쓰여 ‘주둔하다’는 뜻의 서술어로 쓰였으며, 장소를 나타내는 ‘于’ 구조를 보어로 취하고 있다.

(6) 동사(명사)+而+명사(동사)

‘而’는 동사류를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而’의 전후에 하나는 용언이고 다른 하나가 명사면 이 명사는 동사로 쓰인 것이다.²⁸⁾

東海濱有延烏郎細烏女 夫婦而居 『三國遺事』
(동해 바닷가에 연오랑과 세오녀가 부부가 되어 살고 있었다.)

위 예문은 접속사 ‘而’가 명사 ‘夫婦’와 동사 ‘居’를 연결하고 있다. 이 때 명사 ‘夫婦’는 동사로 쓰여 ‘부부가 되다’의 뜻으로 쓰였다.

2) 名詞의 副詞의用法

한문에서는 보통명사, 시간명사, 방위명사가 서술어 앞에서 부사어로 쓰여 부사로 활용된다.

① 庶民子來 『孟子 梁惠王上』 (백성들이 자식처럼 왔다.)

27) 周秉鈞, 앞의 책, p.339, “介詞‘于’字前的名詞(若句中無動詞)用爲動詞”
28) 王力은 ‘與’와 비교하여 ‘與’는 명사류와 명사류를 이어주며, ‘而’는 동사류와 동사류를 이어주는 기능상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王力, 「古漢語通論」, 『古代漢語 上冊』, 북경, 1962, pp.410-411, “連詞 而字的作用是連接形容詞動詞或動詞性詞組 表示兩種性質或兩種行爲的關係”

天下雲合響應『賈誼 過秦論』

(친하의 의병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울림소리처럼 화답하였다.)

② 吾得兄事之『史記 項羽本紀』

(나(劉邦)는 형님을 대하듯이 그(項伯)를 모실 겁니다.)

③ 相如廷叱之『史記 廉頗藺相如列傳』

(나 인상여는 조정에서 그를 질책하였다.)

위 예문은 보통명사가 부사로 쓰인 것이다. ①은 명사 ‘子’가 서술어 ‘來’ 앞에 쓰여 ‘자식과 같이’의 비유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로 쓰이고 있다. ②는 명사 ‘兄’이 서술어 ‘事’ 앞에 쓰여 ‘마치 형을 대하듯이’의 태도나 방식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로 쓰이고 있다. ③는 명사 ‘廷’이 동사 ‘叱’앞에서 위치하여 ‘조정에서’의 뜻으로 의거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로 쓰이고 있다.²⁹⁾

④ 及寡人之身 東敗於齊 長子死焉 西喪地於秦七百里 南辱於楚『孟子 梁惠王上』

(과인의 몸에 이르러서 동쪽으로는 제나라에게 패하여 장자가 거기에서 죽었고, 서쪽으로는 진나라에게 땅을 칠 백리 잃었고, 남쪽으로는 초나라에게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⑤ 朝聞道 夕死可矣『論語 里仁』

(아침에 도에 대해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④는 방위명사가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로, 명사 ‘東’, ‘西’, ‘南’이 서술어 앞에서 ‘-으로’, ‘-를 향해’, ‘-에로’의 뜻의 부사어로 쓰여 동작의 방향이나 동작행위의 발생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로 쓰이고 있다. ⑤는 시간명사가 부사어로 쓰인 것으로, 명사 ‘朝’, ‘夕’이 서술어 앞에서 ‘-에’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어로 쓰여 어떤 때인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로 활용되어 쓰였다.

29) 周秉鈞, 앞의 책, p.340. 참조.

2. 動詞

사람이나 사물의 행위 동작, 연계관계, 존재유무 등을 나타내는 품사다.³⁰⁾ 동사는 문장에서 서술어로 사용되며, 조동사나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사는 전후에 쓰이는 성분에 따라 명사와 부사로 활용될 수 있다.³¹⁾ 즉 동사가 문장에서 주어·빈어·부사어가 될 수 있다. 이를 동사의 명사적 용법과 부사적 용법으로 나누어 동사가 명사, 부사로 쓰일 수 있는 문장 환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1) 動詞의 名詞的用法

‘其’나 ‘之’는 그 뒤에 오는 성분이 용언인 경우 그 구절을 명사화하여 명사구로 만든다.³²⁾ 이 때 대명사 ‘其’는 관형어로 ‘其’ 뒤의 성분은 명사로 쓰이는 것이다.³³⁾ 또한 구조조사 ‘之’는 관형어와 중심사를 연결하여 명사어구화 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之’ 뒤의 동사는 명사로 쓰이는 것이다.³⁴⁾ 따라서 ‘其’, ‘之’ 뒤의 동사는 그 동사와 관련된 사람이나 그 일을 나타내는 명사로 활용되어 쓰인다.

30) 동사의 분류 방식은 학자에 따라 조금씩 견해를 달리 하고 있다. 빈어 성분의 필요성 유무에 따라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누며, 보어 성분의 필요성 유무에 따라 완전동사와 불완전 동사로 나누기도 한다. 주체행위동작의 자작성 여부에 따라 主動詞와 使動詞로 나누며, 주체행위동작의 자발성 여부에 따라 能動詞와 被動詞로 나눈다. 또한 서술능력의 자립성 여부에 따라 本動詞와 助動詞로 나누기도 한다.

31) 金容傑, 앞의 책, p.200. 참조.

32) 王力, 『漢語語法史』, 『王力文集』 第11卷, 山東教育出版社, 1990, p.319. 참조.

33) 周秉鈞, 앞의 책, p.334. 참조.

34) 鄭順泳, 『三國遺事』의 虛詞研究, 성신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pp.190-195. 참조.

(1) 其+동사

- ① 男女同姓 **其生**不蕃 『左傳 僖公二十三年』
 (남녀가 성이 같으면 그 자식이 번성하지 않는다.)
 其竟以此而殞**其生**乎 「韓愈 祭十二郎文」
 (아마 마침내 이것(각기병) 때문에 그의 생명을 잃은 것인가?)
- ② 趙王之子孫侯者 **其繼**有在者乎 『戰國策 趙策』
 (조왕의 자손으로 직위에 봉해진 사람으로서 그들의 계승자가 아직 존재하는 자가 있는가?)

①에서 첫 번째 동사 ‘生’은 관형어 ‘其’ 뒤에서 피수식으로 쓰여 문맥상 ‘낳다’는 동작과 관련된 사람인 ‘자식’의 뜻의 명사로 쓰였으며, 두 번째는 ‘생명’의 뜻으로 명사로 쓰였다. ②는 동사 ‘繼’가 관형어 ‘其’뒤에 쓰여 ‘있다’는 동사와 관련된 사람인 ‘계승자’의 뜻으로 명사로 활용되었다.

(2) 之+동사

- ① 卒相與驩 爲勿頸**之**交 『史記 廉頗藺相如列傳』
 ((엄파와 인상여는) 마침내 서로 좋은 사이가 되어 목숨을 베푸는 우정을 맺었다.)
- ② 殫其地**之**出 竭其廬**之**入 「柳宗元 捕蛇者說」
 (그들 밭의 생산품을 다 가져갔고 그들 가정의 수확물을 다 가져갔다.)

①의 동사 ‘交’는 관형어의 표지기능을 하는 ‘之’ 뒤에 쓰여 ‘勿頸’의 수식을 받는 명사로 쓰였다. 문맥상 ‘交’의 행위와 관련된 ‘우정’의 의미로 서술어 ‘爲’의 빈어로 쓰였다. ②의 동사 ‘入’도 ‘之’ 뒤에 쓰여 ‘其廬’의 수식을 받는 명사로 쓰였다. 문맥상 ‘入’의 행위와 관련된 ‘수확물’이라는 명사로 활용되어 서술어 ‘竭’의 빈어로 쓰였다.

(3) 동사가 나타내는 일이나 사람의 뜻을 겸하여 주어나 빈어로 쓰일 경우³⁵⁾

- ① 政通人和 百廢具興 『范仲淹 岳陽樓記』
(정치가 올바르게 행해지고 임심이 화합되고 모든 폐기되었던 일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 ② 趙氏求救於齊 『戰國策 趙策』 (조씨는 제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하였다.)
夫易彰往而察來 『易 繫辭』 (역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지난 일을 밝히게 하고 미래의 일을 미루어 알게 한다.)

①에서 ‘廢’는 ‘폐기하다’는 동사인데 ‘폐기된 일’의 뜻으로 쓰였다. 이는 동사‘廢’가 동작과 관련된 일을 수식하는 관형어 기능과 중심어(피수식어, ‘일’)의 뜻을 겸하여, 주어로서 명사로 활용되어 쓰이고 있다. ②에서도 동사 ‘求’와 동사 ‘救’가 나란히 이어져 뒤에 쓰인 동사 ‘救’는 ‘구원하다’는 의미인데 ‘구원하다’는 동작과 관련된 사람을 겸하여 ‘구원하는 병사’의 의미로 ‘求’의 빈어로서 명사로 활용되었다.

2) 動詞의 副詞의用法

- 殺其二人 生得一人 『史記 李將軍列傳』
(그 두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을 산채로 잡았다.)
- 生事之以禮 死葬之以禮 祭之以禮 『論語 爲政』
(살아계실 때에는 그를 섬기되 예로써 하고, 돌아가시면 그를 장사지내되 예로써 하며, 그를 제사지내되 예로써 한다.)

위 예문에서 동사 ‘生’은 ‘살다’인데, 동사 ‘得’ 앞에 쓰여 ‘산채로’라는 동작행위의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로 활용되어 쓰이고 있다.

35) 周秉鈞, 앞의 책, p.334, “動詞兼代中心詞作主語賓語時 活用成名詞 …… 兼代中心詞指具體的人或物 作句子的主語 因此變成名詞”

이상으로 동사가 명사나 부사 등 다른 품사로 활용되는 예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동사 중에 자동사가 사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 ① 焉用亡鄭以陪隣 『左傳』
(어찌 정나라를 망하게 하여 이웃 진나라를 살찌게 하십니까?)
- ② 項伯殺人 臣活之 『史記 項羽本紀』
(항백이 사람을 죽였으나 신이 그를 살린 적이 있습니다.)

자동사는 원래 빈어를 동반하지 않는데, 使動動詞로 활용될 때는 뒤에 빈어를 동반한다.³⁶⁾ ①의 ‘亡’은 自動詞인데 빈어 ‘鄭’을 동반하여 使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②의 ‘活’은 자동사인데 빈어 ‘之’를 취하여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活之’은 ‘使之活[그로 하여금 살게 하다.]’의 뜻이다. ‘使’와 같이 사역동사를 이용하여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위 문장처럼 간단하게 동사만을 통하여 사동의 의미를 표현하기도 한다.

3. 形容詞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로 성질형용사, 상태형용사, 의태·의성 형용사, 의문형용사로 분류할 수 있다.³⁷⁾ 형용사는 문장에서 서술어로 사용되며,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나 동사를 수식·한정하는 부사어로 사용된다. 그러나 형용사는 전후에 위치하는 성분에 따라 명사, 동사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형용사의 명사적 용법과 동사적 용법으로 나누어 형용사가 명사, 동사로 쓰일 수 있는 문장 환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36) 楊合鳴, 앞의 책, p.54. 참조.

37) 金容傑, 앞의 책, p.209. 참조.

1) 形容詞의 名詞的用法

‘其’나 ‘之’는 그 뒤에 오는 성분이 용언인 경우 그 구절을 명사화하여 명사구로 만든다.³⁸⁾이 때 대명사 ‘其’는 관형어로 ‘其’ 뒤의 성분은 명사로 쓰이는 것이다.³⁹⁾ 또한 구조조사 ‘之’는 관형어와 중심사를 연결하여 명사어구화 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之’ 뒤의 형용사는 명사로 쓰이는 것이다.⁴⁰⁾ 따라서 ‘其’, ‘之’ 뒤의 형용사는 그 형용사와 관련된 사람이나 그 일을 나타내는 명사로 활용되어 쓰인다.

또한 형용사 앞에 수사가 관형어로 쓰일 경우 그 형용사는 명사로 쓰이며, 형용사가 서술어 앞에서 주어로 쓰이거나 서술어 뒤에서 빈어로 쓰일 경우 명사로 활용된 것이다.

(1) 其+형용사

- ① 其知可及也 其愚不可及也 『論語 公治長』
(그 지혜는 따를 수 있으나, 그 어리석음은 따를 수 없다.)
- ② 且夫人之學也 不志其大 雖多而何爲 「蘇轍 上樞密韓太尉書」
(또한 대저 사람이 학문함에 있어서 그 큰 것에 뜻을 두지 않으면 비록 많이 배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①에서 형용사 ‘知’가 관형어 ‘其’ 뒤에 쓰여 ‘지혜’라는 뜻의 명사로, ‘愚’는 ‘어리석음’이라는 뜻의 명사로 활용되어 주어로 쓰였다. ②는 형용사 ‘大’가 관형어 ‘其’의 수식을 받아 ‘큰 것(뜻)’이라는 의미의 명사로 활용되어 서술어 ‘志’의 빈어로 쓰였다.

38) 王力, 앞의 책, p.319. 참조.
39) 周秉鈞, 앞의 책, p.334. 참조.
40) 鄭順泳, 앞의 논문, pp.190-195. 참조.

(2) 之+형용사

充乎天地之間 稱其氣之小大 『蘇轍 上樞密韓太尉書』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 있어서 그분의 기의 크기와 어울린다.)

위 예문에서 형용사 ‘小大’가 관형어 표지 기능을 하는 ‘之’ 뒤에 쓰여 ‘크기’의 뜻의 명사로 활용되어 빈어로 쓰이고 있다.

(3) 수사+형용사

四美具 二難并 『王勃 滕王閣序』
(네 종류의 훌륭한 일(소리·맛·글·말)이 갖추어졌고 두 종류의 어려운 일 (현명한 주인·훌륭한 손님)이 아울러 겸하였다.)

위 예문은 수사 뒤의 형용사 ‘美’와 ‘難’이 명사로 쓰여, ‘훌륭한 일’, ‘어려운 일’의 뜻으로 주어로 쓰이고 있다. 형용사가 수사 뒤에 쓰여 수사가 나타내는 일이나 사물, 사람 등을 겸하여 명사로 활용된다.⁴¹⁾ 형용사 앞의 수사는 관형어로 쓰인 경우이다.⁴²⁾

(4) 형용사가 나타내는 일이나 사람의 뜻을 겸하여 주어나 빈어로 쓰일 경우

- ① 老弱 轉乎溝壑 『孟子 梁惠王下』
(늙고 약한 자는 웅덩이와 골짜기에 구른다.)
- ② 勤爲無價之寶 慎是護身之符 『明心寶鑑』
(근면함은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보배요, 삼가함은 몸을 보호하는 부신이다.)
權然後 知輕重 度然後 知長短 『孟子 梁惠王上』
(저울질한 뒤에야 가볍고 무거운 것을 알고, 재어본 뒤에야 길고 짧은 것을 안다.)

41) 周秉鈞, 앞의 책, p.343. 참조.
42) 楊合鳴, 앞의 책, p.67. 참조.

①은 형용사 ‘老弱’이 나타내는 사람의 뜻을 겸하여 ‘노약한 백성’의 의미로, 문장의 주어로서 명사로 쓰이고 있다.⁴³⁾ ②의 형용사 ‘勤’과 ‘愼’이 주어자리에 위치하여 명사로 활용되었으며, 형용사 ‘輕重’과 ‘長短’이 타동사 서술어 뒤의 빈어 자리에 위치하여 ‘가벼움’과 ‘무거움’ ‘김’과 ‘짧음’의 명사로 쓰이고 있다.

2) 形容詞의 動詞的用法

형용사가 빈어를 동반할 경우 그 형용사는 사동동사나 의동동사로 활용된다.⁴⁴⁾

- ① 子貢問政 子曰 足食足兵 民信之矣 『論語 顏淵』
(... 양식을 풍족히 하고 병기를 풍족히 하면 백성들이 그를 믿을 것이다.)
- ② 匠人斲而小之 『孟子 梁惠王下』
(장인이 깎아서 이것을 작게 한다.)

형용사가 빈어를 취할 경우, 문장의 서술어인 형용사가 使動動詞로 쓰여 문장의 주어가 빈어로 하여금 어떠한 동작이나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사역문이 된다. ①은 형용사 ‘足’이 빈어 ‘食’과 ‘兵’을 동반하여 사동동사로 쓰였다. ②의 ‘小’는 원래 형용사로 ‘작다’는 뜻이지만 ‘작게 만들다’는 사동의 뜻으로 ‘使之小’와 같은 표현이다. 뒤에 빈어 ‘之’가 왔음을 통해 그것이 동사적으로 쓰인 것임을 알 수 있다.

- ③ 孔子登東山而小魯 登太山而小天下 『孟子 盡心上』
(공자가 동산에 올라서는 노나라를 작게 여겼고, 태산에 올라서는 천하를

43) 周秉鈞 앞의 책, p.343. 참조.

44) 周秉鈞, 위의 책, pp.341-342, “形容詞帶賓語 用作使動用法的動詞 …… 形容詞帶賓語 用作意動用法的動詞”

작게 여겼다.)

叟不遠千里而來 亦將有以利吾國乎 『孟子 梁惠王上』

(선생님께서 천리를 멀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오셨으니 또한 장차 내 나라에 이익이 있겠습니까?)

④ 王聞而異之 『三國史記』 (왕이 듣고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형용사가 빈어를 취할 경우, 문장의 서술어인 형용사가 意動動詞로 쓰여 빈어가 형용사의 어떠한 성질이나 상태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③은 원래 ‘작다’는 형용사 ‘小’가 동사적으로 ‘작게 여기다’는 뜻으로 쓰인 것이며, ④는 ‘이상하다’는 형용사 ‘異’가 ‘이상하게 여기다’는 뜻으로 쓰인 것이다. ‘주어+형용사 서술어+빈어’의 형식으로 주체인 당사자가 빈어인 인물이나 사물이 형용사 서술어가 나타내는 성질이나 상태를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주관적인 견해로, 객관적으로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문의 단어는 문장 전후에 위치하는 성분에 따라 단어의 품사가 달리 쓰인다. 그래서 한문에 정해진 품사가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한문의 단어도 품사는 정해져 있으며 각 품사는 문장 속에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 중에서 名詞·動詞·形容詞를 중심으로 정해진 품사 외에 특정한 문장 환경에서 달리 쓰이는 活用된 예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문장 속에서 어떤 품사와 결합되어 쓰이는지를 살펴야 한다. 예를 들면, 명사 뒤에 대명사가 쓰였다면, 이 명사는 대명사를 빈어로 취하는 동사로 쓰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 어떤 명사 뒤에 다른 명사가 와서 빈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면, 앞의 명사는 동사로 활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명사가 서술어 앞에 쓰였으면 이 명사는 부사로 활용된 것이며, 조동사나 부사 뒤에 명사가 온 경우도 동사로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형식표지로서 명사가 개사구조 앞에 쓰인 경우와 ‘而’ 전후의 명사는 동사로 활용된 것이

다. 동사와 형용사도 형식표지로 ‘其’, ‘之’ 뒤에 쓰였을 경우 명사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동사 형용사가 나타내는 일이나 사람의 뜻을 겸하여 문장의 주어, 빈어로 쓰인 경우도 명사로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형용사가 수사의 수식을 받는 경우도 형용사가 나타내는 일이나 사람의 뜻을 겸하여 명사로 활용되어 쓰인 것이다. 名詞, 形容詞는 빈어를 동반하여 一般動詞와 意動動詞로 쓰일 수 있었고, 名詞, 自動詞, 形容詞가 빈어를 동반한 경우는 使動動詞로 쓰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문의 품사는 특정한 문장 환경 속에서 다른 품사처럼 쓰여 문장구조와 의미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문장의 구조와 문맥에 의해 품사를 파악하여 품사가 활용됨을 알 수 있었다.

IV. 結 論

본 논문은 개정 7차 한문과 교육과정해설서에서 새로운 학습요소로 설정된 ‘품사’에 대한 교수·학습내용요소에 대하여 논하였다. 한문의 품사를 우리 국어와 비교·대조하여 일반성과 개별성을 살펴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단위문장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문장 환경에서 다른 품사처럼 쓰이는 품사의 활용을 명사, 동사, 형용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예문을 제시하여 교육현장에 참고가 되고자 하였다.

우리 국어는 교착형으로 각 형태소로 분석이 가능한 여러 형태들로 단어가 구성되는 유형이며, 한문은 하나의 단어가 대개 하나의 형태소로 구성되는 유형인 고립형이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국어의 품사 분류기준은 ‘형태’, ‘의미’, ‘기능’의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한문은 형태변화가 없으므로 ‘의미’와 ‘기능’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에 따라 품사의 종류도 다르게 분류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어는 기본적으로 명사가 그대로 동사로 쓰일 수 없는 형태적 특징을 갖는데, 명사가 동사의 뜻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동사다운 형태를 갖추어야하고 동사가 명사로

쓰이기 위해서는 명사다운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즉 국어는 품사가 달라지면 형태도 달라진다. 그러나 한문은 고립형으로 이러한 품사별 형태적 특징이 없이 문장에서의 전후에 위치하는 성분에 따라 활용되어 쓰임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명사 뒤에 대명사가 오는 경우 이 명사는 대명사를 빈어로 취하는 동사로 쓰인 것임을 알 수 있었으며, 또 어떤 명사 뒤에 다른 명사가 와서 빈어로서 역할을 수행한 경우, 앞의 명사는 동사로 활용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명사가 서술어 앞에 쓰이면, 이 명사는 부사로 활용된 것이며, 조동사나 부사 뒤에 명사가 온 경우도 동사로 활용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형식표지로서 명사가 개사구조 앞에 쓰인 경우와 ‘而’ 전후의 명사는 동사로 활용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동사와 형용사도 형식표지로 ‘其’, ‘之’ 뒤에 쓰였을 경우 명사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동사 형용사가 나타내는 일이나 사람의 뜻을 겸하여 문장의 주어, 빈어로 쓰일 경우 명사로 활용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형용사가 수사의 수식을 받는 경우도 형용사가 나타내는 일이나 사람의 뜻을 겸하여 명사로 활용되어 쓰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名詞, 形容詞는 빈어를 동반하여 一般動詞와 意動動詞로 쓰일 수 있었고, 名詞, 自動詞, 形容詞가 빈어를 동반한 경우는 使動動詞로 쓰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한문의 품사는 특정한 문장 환경 속에서 다른 품사처럼 쓰여 문장구조와 의미에 변화가 생김을 알 수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문장 속에서 어떤 품사와 결합되어 쓰이는지를 살펴야 하며, 이러한 문장의 구조와 문맥에 의해 품사를 파악하여 품사가 활용됨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을 통하여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한문독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문문법의 교수·학습 내용이 되기를 기대한다.

<參考 文獻>

- 김미형, 『인지적 대조언어학의 방법론 연구 -한국어와 영어를 대상으로-』, 한국문화사, 2009.
- 金容傑, 『漢文解釋方法』, 教學社, 2003.
- 崔相翼, 『漢文解釋講話』, 한울아카데미, 1997.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편, 『풀어쓴 기초한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 성신여자대학교 기초한문편찬위원회, 『기초한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9.
- 楊舍鳴 編著·최금옥 편역, 『古今語法差異』, 한국학술정보주식회사, 2008.
- 유목상, 『한국어의 문법구조』, 한국문화사, 2007.
- 이관규, 『학교문법론』, 월인, 2005.
- 이광정, 『국어문법연구Ⅲ 한국어품사연구』, 도서출판 역락, 2008.
- 이을환·박상규 공저, 『언어학의 이해』, 피어슨 에듀케이션코리아, 2000.
- 임지룡·이은규·김중록·송창선·황미향·이문규·최응환, 『학교문법과 문법교육』, 박이정, 2009.
- 허용·강현화·고명균·김미옥·김선정·김재옥·박동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개론』, 박이정, 2006.
- 安載澈, 「한문교육에 있어서 품사분류 및 용어문제」, 『漢文教育研究』 제10호, 韓國漢文教育學會, 1996.
- , 「學校 漢文文法の 品詞 分類와 그 內容에 관한 問題」, 『漢文教育研究』 제17호, 韓國漢文教育學會, 2001.
- 鄭順泳, 「『三國遺事』의 虛詞研究」, 성신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 「漢文 學校文法の 品詞分類와 名稱」, 『漢字漢文教育』 16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6.
- , 「중학교 한문과 “한문지식영역”에서 한문문법의 문제 -빈어와 보어의 설정문제-」, 『漢文教育研究』 제31호, 韓國漢文教育學會, 2008.
- 韓學重, 「先秦散文의 否定法 研究」, 충남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聶代順 主編,『古代漢語語法解釋』,重慶出版社,1997.
- 楊伯峻·何樂士,『古漢語語法及其發展』,語文出版社,1992.
- 王 力,「古漢語通論」,『古代漢語 上冊』,북경,1962.
- ,「漢語語法史」,『王力文集』第11卷,山東教育出版社,1990.
- 李作南·李仁孝,『古今漢語語法比較』,內蒙古人民出版社,1985.
- 周秉鈞,『古漢語綱要』,湖南人民出版社,1978.
- 匡裕群,『文言語法例釋』,湖南出版社,1997

Abstract

*A study on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the contents of the Parts of Speech
in the Classical Chinese in Accordance with the New Curriculum of 2007*

*/ Jung Soon Young**

This paper studied teaching and learning the contents of ‘the Parts of Speech’ which is described new elements of learning in the Classical Chinese in Accordance with the New Curriculum of 2007.

Korean is ‘the Agglutinative Language’ type of words which is composing various types of analyzing as ‘the Morpheme’ respectively, but Classical Chinese is ‘the Isolation Language’ including type of a word which is composing by ‘the Morpheme’.

For the reason of differences, reference of identity for ‘the Parts of Speech’ have three parts of ‘form’, ‘meaning’, and ‘function’, but reference of identity of Classical Chinese have two parts of ‘meaning’, ‘function’, because which have not changing of type. So, types of ‘the Parts of Speech’ is identified unequally and Korean is changed type if ‘the Parts of Speech’ is changed, but as a isolating type, Classical Chinese is used ‘Conversion’ by ‘the Parts of Speech’ which is locating in the sentence without characteristics of types according to ‘the Parts of Speech’. So called, ‘the Parts of Speech’ of Classical Chinese have changing of meaning and structure of sentence using other ‘the Parts of Speech’ in the special language environments.

This paper studied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Classical Chinese of ‘the Parts of Speech’ and not only studied generality, identity, but also studied how to compose which is ‘function’ and ‘meaning’ of ‘the Parts of Speech’ in the special language environments.

* Lecturer of Sungshin Women’s Univ. / 7743jsy@hanmail.net

We expect a better contents for teaching and learning of Classical Chinese grammar which is more science, system that might be improved ability of reading of Classical Chinese through the this paper.

【Key words】 parts of speech, conversion, agglutinative language, isolation language, morpheme

투고일 : 5월 1일, 심사일 : 5월 19일, 게재확정일 : 6월 3일